

고창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우수'

민선 8기 공약 42.5% 이행...5개 항목 총점 78점 넘어 A등급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농산물 최저가 보장기금 조성 등 호평

고창군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종합결과' 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23년 실적에 대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자료를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이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와 202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체도 등이다. 고창군은 5개 평가항목의 합산 총점이 78점을 넘어 우수등급인 A를 받았다.

고창군은 민선 8기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을 위해 80개의 공약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완료 8건 ▲이행 후 계속추진 26건 ▲정상 추진 45건 ▲일부추진 1건으로 전체 공약 중 42.5%를 완료했다. 이는 전국 평균(34.3%)과 전북자치도 평균(26.5%)보다 높은 이행률이다.

고창군은 내실있고 신뢰받는 공약사업을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

황 보고회를 열고 있다. 연 1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매니페스토 공약 특강을 개최하는 등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사제,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조성 등 군민 맞춤형 공약사업이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을 가장 우선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공약사업을 완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80개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공약을 풍성하게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로컬JOB센터 "도농 상생 구직자 발굴"



부녀회 서포터즈 위촉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양치영)가 도농(都農)상생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인접 지역인 광주, 정읍지역의 부녀회 서포터를 위촉했다.

고창군로컬JOB센터는 정읍 부녀회 서포터즈 위촉에 이어 지난 14일 광주 부녀회 서포터즈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부녀회 서포터즈는 총 11명(정

읍 3인, 광주 8인)으로 지역에서 활발한 일자리 연계 활동을 해온 부녀회원 중에서 선발해 도시민 유추인력의 발굴과 센터 및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양치영 고창군로컬JOB센터 센터장은 "도농 상생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의 비경제활동 인구 발굴에 서포터즈님들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부탁드리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구직자 발굴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메기들이, 잘 자라서 돌아오렴~ 정읍시가 내수면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 14일 동진천이 흐르는 태인·옹동·칠보면 수계에서 어린 메기 3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한 메기 치어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크기 6cm 이상의 건강한 종자만 선별됐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암 환자 최대 3000만원 지원

소아·성인 의료비·가발구입비

정읍시보건소가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와 가발구입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성인과 소아암 환자 모두다. 성인 암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 환자 중에서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히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에서 기준 충족시 연 최대 2000만원(백혈병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암 관련 치료비,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수술료 등이다.

가발구입비는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 가발구입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발구입비 신청시 구비서류는 항암치료로 발생한 탈모 가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가발 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다.

순회경 정읍시 보건소장은 "암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는 병이기 때문에 암 환자 의료비와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아 의료비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교육청 '학생 주도적 진로설계' 특강

비발디연구소 이창현 소장 초빙...초중고 학생·학부모 대상

정읍교육지원청이 지역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고자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발디연구소 이창현 소장을 초빙한 '2024 상반기 정읍교육공동체 진로 특별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서거석 교육감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진로·진학 교육의 활성화'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학생 개인의 진로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창현 소장은 '비발디!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나를 발견하고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진로설계 역량 강화의 방법을 안내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학부모와 교직원이 가정과 학교 안에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자녀와 제자를 위해 함께 할 수 있

는 진로지도의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역교육청과 학교와 가정의 무엇일, 왜, 그리고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해 정읍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협업하는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한 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최용훈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진로를 설계해 학생의 내실있는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도예 전통 계승 도자·현대미술 전시

도자전시관 건립 연계 '흙, 회전하다'전 다음달 2일까지 시립미술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이 '흙, 회전하다'를 주제로 도자 및 현대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오는 6월2일까지 진행되는 전시회는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된 전시회다.

남원도자전시관은 민선 8기 핵심공약사업인 합파우아트밸리 프로젝트의 주요 도입시설로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 연면적 21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시는 건립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해 올해 국비 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도자문화 발전을 위해 시는 그동안 일본 히오키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경덕진시와 우호 협력을 위해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등 대외 협력망을 넓혀왔다.

남원의 도예 전통은 16세기 말 임진왜란-정유재

란 때 일본 규슈지역으로 강제 이주한 남원 도공들에 의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생명력을 유지해 온 특유의 서사를 담고 있다.

'흙, 회전하다'는 이러한 남원의 도예 전통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고자 흙을 주제로 옛 도자와 현대미술을 접목해 문화혼융성을 고찰하는 과정으로서 조선시대 백자와 청화백자, 심수관 자기 등 45건의 도자와 현대미술 작품 25점을 선보이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남원도자전시관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시민들과 함께 남원 도자문화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소통의 장이 열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